

<http://dx.doi.org/10.17703/JCCT.2023.9.5.349>

JCCT 2023-9-42

한·일 대학생의 노인복지 인식, 치매 인식, 치매태도가 치매정책 인식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Korean-Japanese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Welfare, Dementia Perception, and Dementia Attitude on Dementia Policy Perception

류애란*, 이국권**

Ae-Ran Ryu*, Kuk-Gwen Lee**

요약 본 연구는 한·일 대학생의 노인복지 인식, 치매 인식, 치매태도가 치매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일 대학생의 치매정책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일 대학생 노인복지 인식, 치매 태도가 치매정책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결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은 저출산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를 발전시켜 왔으며, 양국의 문화에 맞는 부양방식의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일 대학생들의 치매정책 인식에 있어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일본의 개호보험의 영향으로 대학생들에 노인복지 인식, 치매 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치매인식이 치매정책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나 대학생들의 치매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치매인식은 여러 가지 치매관련 서비스 또는 치매정책 개발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치매인식이 낮으면, 치매에 대해 오해하거나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치매정책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치매와 관련된 사회적 지원, 예방, 치료 등의 서비스와 정책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대학생에 대한 치매인식 개선과 이해를 돕기위한 정부와 사회 등 다양한 정보의 제공과 의식향상을 통한 인식개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어 : 노인복지, 치매, 인식, 정책, 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effect of Korean and Japanese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welfare for the elderly, dementia perception, and dementia attitude on dementia polic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mpact of Korean-Japanese college students on their perception and attitude of dementia policy, it was found that Korean-Japanese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welfare for the elderly and dementia attitude had a positive (+) effect on dementia policy perception. As a result, I would like to present the following implications. Korea and Japan have developed social insurance systems for the elderly in a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and are developing and implementing support services suitable for the culture of both countries. In the perception of dementia policies of college students in Korea and Japan, the influence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n Korea and nursing care insurance in Japan has led to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dementia among college students. However, it has been shown that dementia awareness does not affect dementia policy awareness, indicating that college students lack dementia awareness. Dementia awareness can increase the demand for the development of various dementia-related services or dementia policies, but low dementia awareness can lead to misunderstanding or negative perceptions of dementia. This can also affect the perception of dementia policies, and services and policies such as social support, prevention, and treatment related to dementia may not be sufficiently developed.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ese problems in the future,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awareness through the provision of various information such as the government and society to help improve and understand dementia awareness for college students.

Key words : welfare for the elderly, Dementia, Recognition, , Policy, university student

*정회원,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박사 (주저자)
**정회원,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7월 31일, 수정완료일: 2023년 8월 28일
게재확정일: 2023년 9월 5일

Received: July 31, 2023 / Revised: August 28, 2023

Accepted: September 5, 2023

**Corresponding Author: lkg7744@daum.net
Dept. of Social Welfare, Chungwoon Univ, Korea

I. 서론

고령화 문제는 개인의 위기일 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이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개인의 삶과 질을 떨어뜨리고, 사회경제적인 부분까지 부담을 가중하기 때문이다[1]. 2023년 1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8.4%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2], 고령인구는 2017년 13.8%, 2025년 20%, 2036년 30%, 2051년 40%를 넘어갈 전망으로 초고령 사회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3].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4],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도 증가하면서 노인 돌봄과 부양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5].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화사회의 변화 추세는 우리 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며, 이러한 변화로 인해 치매 유병률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6]. 세계보건기구(WHO)는 뇌 관련 질환에 따라 치매를 경험하고 있는 대상자를 현재 5천 500만명으로 추산하였으며, 2030년에는 40% 증가한 7천800만명, 2050년에는 1억3천900만명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7].

제4차(21~25) 치매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2030년 136만 1천명, 2040년 217만 3천명, 2050년에는 302만 3천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추정 치매 유병률 역시 각각 10.48%, 12.62%, 15.91%로 가속화될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8년 치매 인구는 75만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10.2%, 2050년에는 전체 노인 인구의 16.1%인 303만명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치매 노인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돌봄으로 인한 실직, 정서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간 갈등으로 인해 동반자살이라는 극한 선택을 하는 결과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치매 노인 돌봄의 문제에 대해 미래의 성장 동력이며 사회의 주축이 되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대한민국 대학생의 치매정책 인식,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은 앞으로의 치매 관리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사회 구성원의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필요한 연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생활환경을 지닌 일본 대학생들의 치매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대한민국 대학

생들의 비교·분석하는 것은 치매 발병률이 높아질 것을 예상하고 이에 따라 각종 제반 시설과 정책 마련, 재원 마련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내해야 하는 대한민국 사회에 중요한 방향성을 제안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한국과 일본의 치매 현황

대표적인 노인성 질병인 치매는 대한민국의 고령화 추세에 맞춰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3월 21일 기준 추정 치매 환자 수는 88만 6천여명, 추정 치매 유병률은 10.33%에 해당한다[8]. 일본은 세계의 다른 나라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70년 7.1% 고령화 사회, 1995년 14.5% 고령사회, 2003년 19.1%에 도달하였고, 2010년 22.2%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40년 33.2%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은 현재 인구가 1억 2,000만명 가운데 약 20%인 2,500만명 정도가 노인인구이며, 치매 인구는 전체인구 중 약 8%인 20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은 치매노인의 증가에 따라 다양한 보호 시스템을 정비해오고 있다. 이미 초 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 최근 이뤄진 지역 코호트 연구(local cohort study)에 따르면 지역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85세 이상에는 40%이상 치매 발병률을 보이고 있다.

2. 한국과 일본의 치매정책

대한민국 정부는 2008년부터 3번에 걸쳐서 치매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치매관리법을 통하여 치매에 대한 기본 체계를 마련하였다. 2008년에는 7개년 간의 치매 관리 종합 정책을 마련하였다. 치매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를 통해 치매가 중증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치매 검진 사업과 치매 진료, 약제비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지역 사회 치매 관리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전국 보건소에 치매 상담 센터를 설치하였다.

2012년 8월에는 치매관리법을 제정하였으며, 치매 관련 정책 수립과 사업수행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중앙과 17개 시도에 치매센터를 설치하였다. 치매상담 콜센터도 중앙 치매센터에 설치하였다. 국립요양병원에 치매 기능 보장비용을 전달하는 등 치매관리사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였다. 2014년에는 치매환자 간병으로 지친

가족들이 단기간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치매가족 휴가제를 도입하고 거동이 불편한 경증 치매환자도 방문간호,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과 같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하였다. 2015년 12월에 마련된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수요자 관점에서 보다 촘촘한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고 치매환자 맞춤형 치료체계를 마련하고 복지와 보건의 균형 잡힌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까지의 치매 관리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될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서는 치매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민관협력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재가생활 지원과 중 증도에 따른 치료·돌봄 마련, 수요자와 공급자 측면을 아우르는 종합성을 추구하여 이전의 치매 종합관리 계획들보다 다층화된 측면을 보이고 있다. 제2차 종합 추진 계획에서 유지되어 오듯 계속해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되 지역 중심 연계와 서비스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며 무엇보다 서비스 접근도를 높여 서비스 수혜자들로부터의 정책의 신뢰도를 얻고자 하였다. 따라서 먼저 인프라 확충분야에서는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설치하고 치매 전담형 장기 요양기관을 100개소 이상 추가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4개소에 머물고 있는 치매안심병원을 22개소까지 늘릴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맞춤형 사례 관리 분야에서는 초기 치매 환자 집중관리 경로를 개발하고 맞춤형 서비스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하여 지역자원과 연계 및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 관점에서는 인지지원등급 신설에 따라 17만명이 혜택을 받던 것을 치매안심센터 컴퓨터서비스 제공으로 경증치매환자도 지원받을 뿐 아니라 단기보호제도를 하는 주야간보호기관을 4배 이상 증진 시킬 계획을 수립하였다. 중증치매환자 의료지원에 대해서는 한국형 치매선별검사도구 개발, 치매환자 가족 상담수가 도입, 치매 전문교육 표준화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회적으로는 코로나 펜데믹에 따른 비대면 진료 증가에 발맞추어 비대면 기술을 활용하여, 예방·인지·검진 강화 프로그램 제공, 치매원인진단·치료 기술 개발연구를 2028년까지 진행하고 후견법인 기준 마련 및 후견지원 실태도입, 치매가족휴가제 연 이용 한도를 6일에서 12일로 늘려 가족들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하였다.

일본에서의 치매 발병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1987년에 처음으로 노인 치매 측정 연구가 진행되면서 노인

치매 치료책과 치매 데이케어센터(Day-Service Center)가 개소되었다. 1994년에는 위원회 차원에서 노인 치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데이케어보다 발전된 형태의 치매 노인 그룹홈이 개소되었고 2000년에는 대한민국의 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개호보험의 법제화, 2004년에는 인지증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치매 용어의 변경이 이뤄지면서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뤄졌다. 2005년에는 치매 관리를 위한 10년 장기 계획 수립으로 치매 관리 의사 수련과 치매 관리 훈련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하였고 2008년에는 치매 환자의 의료 질 및 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치매에 대한 폭넓은 설문조사와 치매 관리를 위한 의료 센터의 개소를 추진하였다. 2012년에는 5개년 단위의 오렌지플랜이 새롭게 시작되었으며, 치매 관리 경로를 개발하기 위해 프로젝트 실시와 2015년에는 치매 문제에 대해 신오렌지플랜을 착수하게 되었다. 2015년 WHO 장관컨퍼런스에서는 치매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제적인 행동방향을 이어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러한 국제적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에서는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치매에 대한 개별적 관점을 존중하고 치매 문제를 장기적 해결과제로 보고 치매 단계별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했으며 의료적 관점에서는 치매를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규정하고 예방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에 방점을 두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수집절차

본 연구는 한·일 대학생의 노인복지 인식, 치매 인식, 치매태도가 치매정책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써 일본 A대학을 중심으로 총 180부의 설문지 중 유효한 설문은 150부를 통계처리 하였다. 한국은 일본의 과 인구학적 비슷한 H대학을 중심으로 설문을 조사하였으며 총 130부의 설문지 중 유효설문 119부를 통계처리 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치매정책 인식 10문항, 노인복지 인식 10문항, 치매 인식 8문항, 치매 태도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Cronbach's α 값은 치매정책 인식 .871, 노인복지

인식 .871, 치매 인식 .610, 치매 태도 .730이었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25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결과에 대한 유의수준은 .05로 측정하였으며, 빈도분석,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성별은 한국 대학생은 남자가 44.5%, 여자가 55.57%로 나타났다. 일본 대학생은 남자가 44%, 여자가 56%로 각각의 성별에 있어서는 한국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이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한·일 대학생의 성별 비율은 양국 모두 여학생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학년은 한국 대학생인 경우 1학년 32.8%, 2학년 31.9%, 3학년 10.1%, 4학년 25.2%이며, 일본 대학생은 2학년 18.7%, 3학년 31.3%, 4학년 50.5%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n=269)

구분	한국		일본		
	빈도	퍼센트 (%)	빈도	퍼센트 (%)	
성별	남자	53	44.5	66	44
	여자	66	55.5	84	56
학년	1학년	39	32.8	-	-
	2학년	38	31.9	28	18.7
	3학년	12	10.1	47	31.3
	4학년	30	25.2	75	50.5

2. 한·일 대학생 노인 관련 경험

한·일 대학생 노인 관련 경험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노인관련 교육경험은 한국 대학생 없다 57.1%, 있다 42.9%이며, 일본 대학생 있다 96.7%, 없다 3.3%로 일본 대학생 대다수가 교육경험이 있었으며, 치매노인 동거경험은 한국 대학생 없다 57.1%, 있다 42.9%, 일본 대학생 없다 80%, 있다 20%로 한국 대학생이 노인과 동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동거경험은 한국 대학생 없다 81.5%, 있다 18.5%, 일본 대학생 없다 73.3%, 있다 26%로 양국 모두 노인 동거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한·일 대학생 노인 관련 경험

Table 2. Experience of Korean-Japanese university students related to the elderly

(n=269)

구분	한국		일본		
	빈도	퍼센트 (%)	빈도	퍼센트 (%)	
노인관련 교육경험	있다	51	42.9	145	96.7
	없다	68	57.1	5	3.3
치매노인 동거경험	있다	51	42.9	30	20.0
	없다	68	57.1	120	80.0
노인 동거경험	있다	22	18.5	40	26.7
	없다	97	81.5	110	73.3

3. 한·일 대학생 노인복지 인식, 치매 인식, 치매 태도가 치매정책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일 대학생 치매정책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전체적인 상관관계는 노인복지 인식, 치매 인식, 치매 태도 값들이 정적(+인 상관계수)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한·일 대학생 노인복지 인식, 치매 인식, 치매 태도, 치매정책 인식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between Korean and Japanese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welfare for the elderly, dementia perception, dementia attitude, and dementia policy perception

(n=269)

구분	치매정책 인식	노인복지 인식	치매 인식	치매 태도
치매정책 인식	1	-	-	-
노인복지 인식	.637**	1	-	-
치매 인식	.342**	.456**	1	-
치매 태도	.453**	.470**	.450**	1

** p<.01

한·일 대학생 노인복지 인식, 치매 인식, 치매 태도가 치매정책 인식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다. 분산분석 결과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는 F통계 값이 p=.001에서 68.189의 수치를 보이며, 회귀식에 대한 R²값은 .436으로 43.6%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Durbin-Watson은 1.526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대학생의 치매정책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결과 노인복지 인식($t=9.839$, $p<.001$), 치매 태도($t=3.570$, $p<.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일 대학생 노인복지 인식, 치매 태도는 치매정책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한일 대학생 노인복지 인식, 치매 인식, 치매 태도 치매정책 인식에 미치는 영향

Table 4. The Effects of Korean and Japanese College Student Elderly Welfare Perception, Dementia Perception, Dementia Attitude and Dementia Policy Perception

(n=269)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se	β			
치매정책 인식	(상수)	.159	.323		.590	.234
	노인복지 인식	.682	.069	.541	9.839	.000
	치매 인식	.009	.071	.007	.127	.899
	치매 태도	.237	.066	.196	3.570	.000
F			68.189***			
R ²			.436			
수정된 R ²			.429			
Durbin-Watson			1.526			

*** $p<.001$

4. 한국 대학생 노인복지 인식, 치매 인식, 치매 태도가 치매정책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 대학생 치매정책 인식에 대한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5>과 같이 전체적인 상관관계는 노인복지 인식, 치매 인식, 치매 태도 값들이 정적(+)인 상관계수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한국 대학생 노인복지 인식, 치매 인식, 치매 태도, 치매정책 인식 상관관계

Table 5. Correlation between Korean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welfare for the elderly, dementia perception, dementia attitude, and dementia policy perception

(n=119)

구분	치매정책 인식	노인복지 인식	치매 인식	치매 태도
치매정책 인식	1	-	-	-
노인복지 인식	.711**	1	-	-
치매 인식	.495**	.600**	1	-
치매 태도	.650**	.654**	.635**	1

** $p<.01$

한국 대학생의 치매정책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과 같다. 한국 대학생 분산분석 결과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F통계 값이 $p=.001$ 에서 49.872의 수치를 보이며, 회귀식에 대한 R²은 .565로 56.5%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Durbin-Watson은 1.655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학생의 치매정책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노인복지 인식($t=5.905$, $p<.001$), 치매 태도($t=3.726$, $p<.001$)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대학생 노인복지 인식, 치매 태도는 치매정책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한국 대학생 노인복지 인식, 치매 인식, 치매 태도가 치매정책 인식에 대해 미치는 영향

Table 6. The Effect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f Welfare for the Elderly, Dementia Perception, and Dementia Attitude on Dementia Policy Perception

(n=119)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se	β			
치매정책 인식	(상수)	.386	.323		1.196	.234
	노인복지 인식	.553	.094	.506	5.905	.000
	치매 인식	-.024	.109	-.018	-.220	.826
	치매 태도	.371	.100	.331	3.726	.000
F			49.872***			
R ²			.565			
수정된 R ²			.554			
Durbin-Watson			1.655			

*** $p<.001$

5. 일본 대학생 노인복지 인식, 치매 인식, 치매 태도가 치매정책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일본 대학생 치매정책 인식에 대한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7>과 같이 전체적인 상관관계는 노인복지 인식, 치매 태도 값들이 정적(+)인 상관계수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7. 일본 대학생 노인복지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치매 인식, 치매 태도, 치매정책 인식 및 태도 상관관계

Table 7. Correlation between Japanese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welfare for the elderly, dementia awareness, dementia attitude, and dementia policy recognition and attitude

(n=150)

구분	치매정책 인식	노인복지 인식	치매 인식	치매 태도
치매정책 인식	1	-	-	-
노인복지 인식	.496**	1	-	-
치매 인식	.020	.162*	1	-
치매 태도	.236**	.181*	.249**	1

* p<.05 ** p<.01

일본 대학생의 치매정책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8>과 같다. 일본 대학생 분산분석 결과 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는 F통계 값이 p=.001에서 18.701의 수치를 보이며, 회귀식에 대한 R²은 .268로 26.8%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Durbin-Watson값은 1.897로 나타나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였다.

일본 대학생의 치매정책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노인복지 인식 t=6.671, p<.001, 치매 태도 (t=2.376, p<.05)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본 대학생 노인복지 인식, 치매 태도는 치매정책 인식 및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일본 대학생 노인복지 인식, 치매 인식, 치매 태도가 치매정책 인식에 미치는 영향

Table 8. The Effect of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f Welfare for the Elderly, Dementia Perception, and Dementia Attitude on Dementia Policy Perception

(n=150)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se	β			
치매정책 인식	(상수)	.567	.505		1.122	.264
	노인복지 인식	.707	.106	.481	6.671	.000
	치매 인식	-.136	.098	-.101	-1.382	.169
	치매 태도	.211	.089	.174	2.376	.019
F			18.701***			
R ²			.268			
수정된 R ²			.263			
Durbin-Watson			1.915			

*** p<.001

V. 결론

본 연구는 한·일 대학생의 노인복지 인식, 치매 인식,

치매태도가 치매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일 대학생 노인 관련 교육경험을 살펴보면 한국 대학생 없다 57.1%, 일본 대학생 있다 96.7%로 일본 대학생 대다수가 강의나 교육 경험이 있었으며, 치매노인 동거 경험은 한국 대학생 없다 57.1%, 일본 대학생 없다 80%로 치매노인 동거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과 동거는 한국 대학생 없다 81.5%, 일본 대학생 없다 73.3%로 양국 모두 노인과 동거경험이 없다가 높게 나타났다. 한·일 대학생의 치매정책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일 대학생 노인복지 인식, 치매 태도가 치매정책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결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일 대학생 노인 관련 교육경험은 한국 대학생 57.1%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일본 대학생 96.7%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치매인식이 치매정책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은 저출산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을 위한 사회보험 제도를 발전시켜 왔으며, 양국의 문화에 맞는 부양방식의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일 대학생들의 치매정책 인식에 있어 한국의 노인장기요양 보험과 일본의 개호보험의 영향으로 대학생들에 노인복지 인식, 치매 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치매 인식이 치매정책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나 대학생들의 치매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치매인식은 여러 가지 치매관련 서비스 또는 치매정책 개발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치매인식이 낮으면, 치매에 대해 오해하거나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치매정책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치매와 관련된 사회적 지원, 예방, 치료 등의 서비스와 정책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대학생에 대한 치매인식 개선과 이해를 돕기위한 정부와 사회 등 다양한 정보의 제공과 의식향상을 통한 인식개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R. N. Yu,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in the process of successful aging of a new middle-aged man and its moderation by self-leadership",

-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2018.
- [2]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Resident registration demographics”, 2023.
- [3]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 special estimate of the future population, 2020.
- [4] M. J. Kim and J. Y. Hwang, “A Study o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for Super-Aging Society”, *Journal of Korean Industrial Technology Expansion*, Vol. 23, No. 10, pp. 395-405, 2019. DOI : 10.5762/KAIS.2019.20.10.395
- [5] Y. H. Park and K. W. Ko, “The Effect of Nursing Care Workers’ Elderly Care Attitude on Service Quality through Job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Interaction Effect according to the Type of Long-term Care Institution”, *Welfare studies for the elderly*, Vol. 76, No. 3, pp. 37-64, 2021. DOI : 10.21194/kjgsw.76.3.202109.37
- [6] E. H. Shin and H. K. Lee, “Factors Influencing Adult Dementia Knowledge, Fear of Dementia, and Intention of Dementia Prevention Behavior on the Demand for Dementia Prevention Education”.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9 No.4, pp.67-75, 2023. <http://dx.doi.org/10.17703/JCCT.2023.9.4.67>
- [7] Data SOM.(2021.09.09.). WHO “Dementia patients on the rise worldwide”. Approaching 140million by 2050. [http:// www. datasom.co.kr/news/article View.html?idbno=11769](http://www.datasom.co.kr/news/article_View.html?idbno=11769)
- [8] Central Dementia Center, Prevalence of dementia patients in Korea, metropolitan cities and counties, 2022. <http://www.jumin.mois.go.kr>.